

존경하는 인물을 만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념관

고양시 김대중 기념관

데이빗 버터워스 씨는 그의 부인과 함께 6월 14일 개관한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버터워스 씨는 영국 요크 출신으로 랭캐스터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였으며 부인과 함께 고양시 백석동에 살고 있다.



글. 사진. 데이빗 버터워스 부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옛 사저는 현재 고양시가 맡아서 보존하고 있다. 덕분에 사진으로만 볼 수 있던 사저를 방문할 수 있고 사저는 지금은 박물관 기능도 하는 기념관이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보존하는 것은 위대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한 인간에 대한 세심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한 국의 애국자, 국제 외교관, 그리고 평화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으며 훌륭한 여성이었던 그의 아내, 이희호 여사의 존재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방문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밀 통로가 많은 이 집의 내부는 비밀 요원에게 쫓기는 듯한 한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집과 전시물을 통해 그가 살아온 삶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정문을 걷다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심은 아름다운 식물들과 관목들이 가득 찬 평화로운 정원을 발견하게 된다. 인동초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기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꽃을 피운다. 그래서

이 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가 정원에서 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집에 발을 들이면 국내 외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다. 1층 거실에 소파와 함께 놓여있는 테이블과 그 옆 방의 긴 식탁은 주요 인사를 만나던 정치적 무대로 설명된다. 1층 거실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양에 있을 때 IMF 총재를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거실과 1·2층 방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층 서재에는 옛날 슬라이드 필름을 돋보기로 보면서 유럽, 미국 그리고 멕시코를 여행했던 젊은 시절의 멋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독특한 슬라이드 필름의 원본을 통해 우리는 로마와 같은 곳에서 잘 차려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상 깊은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같은 방에서, 우리는 그의 일기에 있는 상세한 메모와 엄청난 양의 책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안방에서는 그의 중절모와 깨끗한 신발과 같은 개인적인 기념품을 볼 수 있다.

지하에 세세하게 전시되어 있는 전시 내용은 1·2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가 견뎌낸 격렬한 투쟁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역경의 바다’라 불리는 지하 공간에 들어서면, 방문객은 작은 의자에 앉아 투쟁, 납치, 그리고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지하 공간은 부정적인 힘에 대항하는 그의 투쟁을 표현한다. 구석에는 지하 실로 들어가는 탈출구가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원래 건축 계획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당시 탈출구의 입구는 책장에 가려 숨겨져 있었다 한다. 이 비좁은 공간에서의 조명은 현재 안전한 수준으로 밝으나 그전에는 조명도 없었다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찰에 의해 쫓기는 삶을 보낸 적도 있어, 그가 만약 지하실에 피신해야 했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죽인 듯 있었을 것이다. 복도를 따라가면 그가 투옥되었던 청주교도소 감방이 재현되어있다. 갈끔한 손글씨로 뻑뻑하게 적힌 그의 편지들은 그의 투쟁의식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다시 1층으로 올라가기 전 ‘대통령의 창문’이라는 방은 지하실과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준다. 밝은 전시실의 분위기는 희망을 강조하며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뤄낸 뛰어난 업적을 감상할 수 있다. 대통령의 상징인 금빛 봉황이 출구 앞에서 빛나고 내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와 만남을 기록하는 사진도 있다. 마지막 방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둘러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림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치 있고 추천할 만한 여행 코스에 적합한 마무리다. 🐦

A respectful and thought-provoking memorial to a great man

A Visit to President Kim Dae-Jung Residence Memorial in Goyang



The former residence of Kim Dae-Jung in Goyang has now been preserved for the nation. But rather than just being a snapshot view of the house in which he lived, we discover something which is so much more than a museum. It is a perceptive and sensitive appreciation not only of the man, but also of his significance as a politician. Here we can sense the Korean patriot, the international diplomat and peacemaker at work and we can also feel the presence of a great woman, his wife. Furthermore, we can imagine the family man visited by his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yet juxtaposed against this, the house with its many escape routes, also gives us a sense of a man hunted by the secret service. Through observation of the living quarters and through carefully chosen exhibits, we can appreciate a remarkable life in the face of adversity.

Walking through the gates, the visitor finds a peaceful garden with numerous beautiful plants and shrubs which were planted by Kim Dae-Jung and Lee Hee-Ho. Honeysuckles flourish, appropriately enough for Kim Dae-Jung: a plant which can overcome difficult conditions to bloom in all seasons. Perhaps the great man and

his wife rested in the garden but entering the house one thinks more of a man meeting important politician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 the main reception room, we see the armchairs around a table and the dining room is described as ‘a political stage for distinguished guests’. This reminds us of how, whilst in Goyang in 1998, he met the IMF president.

All rooms in the living quarters are faithfully preserved, but thoughtful extra touches add to the experience. In his study, fascinating personal Kodachrome slides of his travels as a young man around Europe, America and Mexico can be observed through a microscope. In the distinctive and impressive Kodachrome color we observe a dapper Kim Dae-Jung in places such as Rome. In the same room, we can marvel at the detailed notes in his diary and the sheer quantity of books. Nearby, in the master bedroom, we see such personal memorabilia as his fedora hat and immaculate shoes.

In cleverly nuanced displays, enhanced by excellent display boards,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e basement and the first floor. The basement is symbolic of the intense struggle he endured. Entering a dimly lit room called ‘sea of adversity’, the visitor can watch a video of his struggles, kidnap, and persecution. The darkness seems to symbolize the struggle against negative forces. In the corner is an escape hatch into a cellar, which significantly is not recorded on the original building plans. At the time the entrance was concealed by a bookshelf. In this cramped space light is now at the minimum safety level. At the time there would have been no light. Kim Dae-Jung had spent a life hounded by security forces and if he had to take refuge in the cellar it would be in the pitch black. Further along the corridor, is a recreation of his minute Cheongju prison cell. The display of letters written in prison, in neat handwriting, is a nice touch and highlights further the sense of struggle.

Climbing up to the first floor we notice a marked contrast to the basement in the room ‘the President’s window’. It is said that through darkness there is light and the separate display rooms on this level are bright which emphasise hope and we can appreciate the enormous achievements of the man who has become President. The golden phoenix, the symbol of the President, shines outside the room. Inside, we see images of a man with a significant international reputation meeting Nelson Mandela and as the recipient of the Nobel Peace Prize. Finally, the last room symbolizes the journey with a painting of Kim Dae-Jung surrounded by doves – a symbol of peace and the achievements of a truly remarkable man and a fitting end to a rewarding and recommended visit. 🕊